경기소방서 소속 소방관들이 7일 오후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코리아 2000' 냉동창고 지하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사망자를 수습해 창고 밖으로 옮기고 있다. /경인일보=전두현 기자

펑!펑!펑! 솟구친 불기둥…"살려달라" 아비규환

유독가스 꽉찬 지하 암흑속 비명만

■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 상보

40여명의 사망·실종자를 낸 경기도 이천시 호법면 유산리 냉동창고 '코리아 2000' 화재현장은 한 마디로 전쟁터 같았다.

7일 오전 10시 55분께 화재가 난 후 12시간이 지나 이날 밤이 됐는데도 여전히 시커먼 연기가 사방을 뒤덮어 숨쉬기조차 힘들었고, 바삐 움직이는 소방차, 경찰차 등의 경음과 구조대원들의 함성이 뒤섞여 마치 전장의 한복판에 들어온 듯한 착각을 일으켰다.

불길이 잡힌 후에도 냉동창고는 시커먼 연기 기둥에 뒤덮인 채 쉴새 없이 매캐한 유독가스를 토해내 구조대원들의 접근을 어렵게 만들었다.

축구장보다 더 큰 냉동창고의 주출입문에서는 아직도 매케한 유독가스를 포함한 검은 연기가 밖으로 쉴새 없이 뿜어져 나오고 있어 밖에서는 내부를 1m도 들여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이날 오후 5시를 넘기면서 날이 점차 어두워지자 소방당국과 경찰은 사고 현장 주변에 대형 조명등을 설치하는 등 야간 구조작업에 돌입했다.

불이난 냉동창고는 42번 국도에서 100여m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불이 난 냉동창고 주변 200여가구 주민 600여명은 마을방송을 듣고 인근 호법면사무소 등으로 긴급 대피했다.

사고 소식을 전해들은 냉동창고 직원 가족들은 사고 현장으로 속속 도착하고 있으며 이미 도착한 가족들은 생사가 확인 안된 가족을 애타게 찾으며 곳곳에서 울부짖고 있다.

냉동창고 인근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이영선(여·43)씨는 "갑자기 펑 하는 폭발음이 연달아 나면서 불기둥이 치솟았고 온 몸에 화상을 입은 아주머니 한 명이 살려달라며 식당으로 뛰어들어와 차에 태워 병원으로 옮겼다"고 말했다. 이씨는 병원으로 옮겨진 아줌마가 겉옷이 모두 불에 타 온 몸에 화상이 심했고 살갗이 모두 벗겨져 보였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인근 냉동창고에서 일하는 또 다른 목격자 박모(여·38)씨도 "오전 11시쯤 창고에서 일하고 있는데 꽝소리가 연달아 났고 건물외벽이 심하게 흔들리더니 비명 소리가 났다"고 말했다.

불길이 거의 잡힌 오후 2시30분께 소방대원 250여명이 창고 내부로 구조·수색작업을 하기 위해 투입됐으며 지하 1층에서 오후 3시 1분 시신 1구가 발견된 것을 시작으로 3시 11분 2구, 25분 4구, 5시 45분 1구, 7시30분 14구 등 22구의 시신이 잇따라 발견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폭발당시 냉동창고 지하에서는 56명이 작업 중이었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나 이들 외에 이 창고로 잠시 들렀던 인원도 있다고 전해졌다.

현장에 차려진 사고상황실의 소방당국 관계자는 "지하 1층 기계실에서 작업 중 10초 간격으로 3번의 연쇄폭발이 있었고 샌드위치 패널로 불이 옮겨 붙으며 순식간에 불길이 번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재난대책본부 가동

경기도 이천시는 7일 호법면 '코리아2000' 냉동창고 화재와 관련해 조병돈 이천시장을 본부장으로 재난대책본부를 구성해 화재사고 구조 및 수습작업에 들어갔다.

시는 이천소방서와 합동으로 총괄행정, 인명구조, 의료구호, 장례대책, 예산홍보 등 5개반을 편성했으며 부상자 응급치료 및 이송, 사망자 장례절차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박명재 행정자치부장관은 이날 소방방재청 상황실을 방문해 화재 수습상황을 보고 받고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했다고 행자부가 밝혔다. /연합뉴스

주요 대형 화재사고 일지

▲1971년 12월 25일=서울 대연각호텔 화재(165명 사망)

▲72년 12월 2일=서울 시민회관 전소(53명 사망, 76명 부상)

▲74년 11월 3일=서울 대왕코너 전소(88명 사망, 31명 부상)

▲84년 1월 14일=부산 부전동 대아관광호텔(38명 사망, 76명 부상)

▲93년 4월 19일=충남 논산 서울신경정신과 의원 화재(34명 사망)

▲99년 6월 30일=경기 화성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유치원생 등 23명 사망, 3명 부상)

▲99년 10월 30일=인천 중구 인현동 러브호프집 화재(52명 사망, 56명 부상)

▲2003년 2월 18일=대구지하철 중앙역 방화(사망 51명, 부상 138명, 실종 59명)

▲2007년 2월 11일=여수출입국관리소 외국인 보호시설 화재(외국인 10명 사망, 17명 부상)

황일봉 남구청장 직무 복귀

항소심 3천만원 벌금형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구청장 직위를 상실하는 징역형을 선고받았던 황일봉(51) 광주시 남구청장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로써 1심에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공무원 신분을 상실, 구청장직을 물러났던 황 청장은 이날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

광주지법 제10형사부(부장판사 김태병)는 7일 개발제한구역에 불법건축물을 건립한 뒤 화재로 인해 해당 자치단체에 10억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황 청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법 집행 기관의 수장으로서 법 준수의무를 저버린 죄질은 불량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건축허가가 불가능하다는 검토가 이뤄진 시점에 이미 부지에 대한 대부계약·드라마 제작사와 협약 등이 체결돼 사업 중단시 큰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 점, 2006년 3월 이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돼 위법 건축물로서 하자가 치유된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겁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위반 등 건축허가 과정의 위법성과 직권남용 등 범죄사실은 대부분 인정했다.

황 청장은 지난 2004년 5월 개발제한구역 내인 광주시 남구 양과동 옛 대촌동초등학교 폐교시설에 '건물의 신·증축이 불가능하다'는 주무 부서의 보고를 받고도 이를 무시한 채 관내 지방문화원인 남구문화원 명의로 해당 부지에 '광주드라마영상센터'를 건립한 혐의로 기소됐었다. 한편 광주시 남구청은 황 청장의 직무복귀에 대해 환영 입장을 표명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취업 미끼 사기범 징역·실형 잇따라

취업을 미끼로 금품을 받아 가로챈 국회의원의 전 수행비서와 사립학교 이사장의 친척이 잇따라 징역형과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 단독 김태병 부장판사는 7일 "구청이나 대기업에 취업시켜주겠다"며 거액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청소차 기사 차모(43)씨에게 징역 1년을, 광주지역 모 국회의원 사무실 전 사무국장 강모(46)씨와 전 수행비서 나모(46)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차씨 등 3명은 지난 2005년 5월11일께 "광산구청에 기능직으로 딸을 취업시켜주겠다"며 교제비 명목으로 100만원을 받는 등 지난해 1월 17일까지 5명의 피해자들로부터 16차례에 걸쳐 2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광주지법 형사4 단독 장정희 판사도 이날 교사 채용을 미끼로 9차례에 걸쳐 교사 취업 희망자들로부터 3억2천5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광주 모 사립학교 법인 이사장의 처조카 김모(47)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지역 신문기자 정모(46)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광주신세계 유상 증자 "법적 하자없다" 무혐의

검찰이 편법 경영권 승계 논란이 일었던 광주신세계의 유상증자 과정에 법적 하자가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는 7일 배임 혐의로 고발됐던 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등 경영진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1998년 광주신세계가 50만주 증자를 결정하던 날 이사 4명 중 3명이 참석해 의결 과정에 위법성이 없었으며, 1997년 부채비율이 257%였던 신세계가 대주주 일가의 사재 출연을 통해 계열사의 자금부족 사태를 풀어야 했던 상황이어서 광주신세계의 신규발행 주식 실권이 불가피했다고 결론내렸다. /연합뉴스

버스 수납금 수억원 5년간 '삥땅'

쌍나팔

○…'곶감 빼먹듯이' 5년 동안 버스 수납금 수 억원을 빼돌려 온 버스회사 직원들이 경찰에 덜미.

○…여수경찰은 7일 여수 Y여객 직원 이모(여·43)씨 등 3명을 특수절도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

○…경찰에 따르면 수납원으로 근무하던 이씨 등은 버스운행을 마치고 수납된 요금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매일 3만~40만원 가량을 신발 속에 넣어서 나오는 수법으로 지난 2003년부터 최근까지 2억3천만원 상당의 현금을 훔쳤다는 것.

○…이들은 지금까지 다른 직원들의 눈을 피해 범행을 저질러 왔지만, 수납금 정산이 계속해서 일치하지 않는 것을 수상히 여긴 회사측이 한 달 전 수납실에 CCTV를 설치한 뒤 범행 일체가 탄로.

/여수=강성훈기자 kangsw@